

## 인문학과 기독교문학 서설

신 현 호(백석대 어문학부 영어학 전공)(3-5)

### I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다. 이때의 '모든 영역' 속에는 하늘과 땅을 비롯한 우주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에 살아 숨 쉬는 생명체,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전 부분을 포함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좇아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지성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한 '학문'의 영역은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라이컨(Leland Ryken)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이 정복해야 할 땅은 채워지고 모양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지상적 영역의 전체이다”라고 말한다(Ryken, 『기독교와 문학』 75).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학문'에 입문되고 있고, 또한 그들은, 명백히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학문에 지속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으로 볼 때,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학문 활동을 무시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학문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자신의 삶에서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데 있는 한, 기독교자들에게 있어서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조망작업은 취사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독교자의 삶의 본질과 존재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인문학의 제 영역은 기독교적 학문과 접근이 구체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자들에게 소명의식을 일깨우며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인문학은 상호간의 상호 담론적 논의 부족과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대립적 양상을 띠어왔다. 인문학은 기독교가 독단적 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예단 때문에 인문학적 논의에서 기독교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문은 불가피하게 일련의 근본적 가정이나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본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독교 관점을 구성하는 특정 요소들은 기독교인들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연구가 비 기독교인들의 연구와 항상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의 가치와 그것의 필요 불가결함을 긍정하는 종교이며 인문학이 다루는 지식들과 관점은 자아와 세상을 아는 지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기독교세계관의 핵심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문학과 종교의 접근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인문학과 기독교의 갈등과 공존의 오랜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기독교와 인문학의 상호작용, 즉 기독교가 인문학에, 인문학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근간에 급격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인문학 내외적 다양성 추구 경향에 따라 인문학적 성찰과 담론에 기독교적 자산을 활용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철학, 문학, 역사학, 문화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재조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기독교와 문학에 있어 하

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믿음이 모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경도 완벽한 언어의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문학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 성경을 본보기로 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통념은 기독교와 문학 그 자체 사이에는 아무런 반목이 없다는 것이다. 문학과 기독교를 대립시키려는 전통은 기독교 이전의 플라톤적 전통이나, 성경 이후의 교부 시기나 그 이후 시기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 그 자체는 결코 그런 전통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 속에는 문학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의 흔적은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학 영역의 하나인 문학과 문학비평이 기독교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의 문학성에 근거하여 ‘기독교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학은 하나님의 창조원리 아래 있는 피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학의 모습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독교문학을 논의한 뒤 기독교문학 및 문학비평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문학 발생 기원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간이 신을 경외하는 종교적 제의의 표현에는 춤과 노래와 고백 등이 아우러진 종합 예술적 방법이 동원되며 이러한 의식들은 문자를 이용한 문학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문학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다하더라도 문학과 종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중세 이전의 유럽에 쓰여진 것들 중 대부분은 기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독교문학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아무도 느끼지 않았다. 기독교문학이라는 논의를 유발시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문학이 기독교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적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암흑의 시대로 지칭되는 중세에 있어 서구의 기독교 문화와 전통은 확고히 그 뿌리를 다지게 된다. 문예부흥기까지 기독교문학이라는 개념은 의미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모든 문화적 상황을 지배하였다. 르네상스기에 접어들면서 휴머니즘이 강력히 대두되어 기독교 신앙과 세속문화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문예상의 새로운 흐름 또한 종교적 목적의 종전 문학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기에 이르렀다. 비교적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크리스천 휴머니즘’의 조류가 일어난다. 이 때 부터 당시 시대의 조류 문학과 분리되는 기독교문학의 개념이 나타나고, 시대사조를 표방하는 문학과 기독교문학은 구별되기 시작했다. 사실 이러한 분류는 시대의 문학이 당시 사회가 그런 것처럼,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며 윤리나 영혼에 대한 성찰을 생략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져오며, 문학이 더 이상 기독교, 또는 교적 진리와 체험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문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설이지만 미학적 요소와 함께 사상적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문학의 운명에 근거한 것이다. 문학은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세계의 존재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문학은 주제 없이 온전한 문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문학은 사유의 깊이와 정신의 넓이를

요구한다. 이 맥락에 이르러서 우리는 기독교가 문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기독교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기독교에게는 매우 익숙하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성경의 읊기에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거니와 인류가 탄생시킨 위대한 문학 작품들 속에서 기독교와 성경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학의 완전함을 위해 기독교는 기여해왔다. 그러므로 기독교문학이란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학적 요소가 어울려서 기독교문학이라는 육체를 만든다. 기독교가 없어도 안 되고 문학이 빠져서도 안 된다.

쿠르트 호호프(Kurt Hohoff)는 기독교문학은 그 표현양식에 있어서는 일반문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단지 그 내용면이나 작품의 주제 및 소재, 발상에 있어서 기독교성을 지닌 문학이다.’라고 주장한다(Hohoff, 112~113). 그 뿐 아니라 ‘기독교문학은 비 기독교문학과 그 표식은 같지만 내용과 의미에서는 다르다. 또 문학에 있어서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소재의 양상이거나 주제적인 상태이지 어떤 형식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문학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 조직에 대한 작가의 동감에서 야기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기독교적 성격을 갖추었을 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 온전한 기독교문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기독교문학이 일반문학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작품 발상 및 동기의 기독교성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바로 작가의 기독교적 신념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가 된다. 이처럼 기독교문학의 구성요소를 논함에 다음 세 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작품 소재의 기독교성, 주제의 기독교성, 작가의 기독교성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작품 소재의 기독교성을 보면, 문학이 인생의 다양한 체험을 그 주요 소재로 삼는 것에 반하여 기독교문학은 특히 기독교 신앙의 체험을 그 소재로 할 수 있다. 물론 그 소재가 아무리 기독교적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의도가 반 기독교적이라면 그 소재는 기독교문학 성립에 포함될 수 없다. 또 소재의 흐름이 기독교의 현실을 통렬히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정화와 성찰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 소재는 훌륭한 기독교문학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편 많은 비평가로부터 기독교문학 작가로 평가되는 엘리엇(T. S. Eliot)은 「종교와 문학」(Religion and Literature)에서 이른바 종교 문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광의의 문학이란 입장에서 문자로 기록된 기독교 문헌을 말한다. 두 번째는 신앙시와 같은 것으로 시의 모든 주제를 종교적 정신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부분만을 취급하는 작품을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지목하는 가장 바람직한 종교와 문학의 관계로, 종교의 대의를 전파하는데 성심껏 노력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문학이다(Eliot, 389). 이런 유형의 작품으로 엘리엇은 체스터튼(Gilbert Keith Chesterton)의 『목요일의 남자』와 『브라우닝 신부』를 예로 들었다. 이 두 작품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배경을 보이면서도 죄인에 대한 자비와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실천에 대한 주제를 드러내므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나타낸다. 엘리엇은 계획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을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 문학이라고 보았다.

한편 루이스(C. S. Lewis) 기독교 문학을 ‘기독교적 이야기나 감정을 문학적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독교 문학이라고 정의한다(Lewis, 39~40).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문학의 원칙

으로 현대 문학비평과 신약성경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현대 문학비평의 키워드는 창조성, 능동성, 자유 같은 것이고, 위대한 작가란 창조적이고, 일반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의 관념을 부숴버리는 강한 개성의 사람으로 여기고, 위대한 작품 또한 이러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작품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작품은 창조보다는 모방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현대 문학은 창조성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창조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입각해서 기독교 문학 역시 작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문학이든 일반 문학이든 그 작품성 즉 내용이 아닌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루이스는 말한다. 기독교적으로 계란 프라이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없듯이, 기독교적으로 글 쓰는 방법이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문학은 이러한 것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문학을 해야 한다고 루이스는 주장한다.

이승우는 기독교 문학은 '문학 내부의 고유한 미학적 형식 안에 기독교적 진리를 함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정의한다([www.cafe.naver.com/jhlove3](http://www.cafe.naver.com/jhlove3)). 그는 오늘날 기독교 작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작품은 기독교적 진리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차원을 무시해서 문학이라는 보편성을 얻는 데 실패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작품은 예술적 차원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진리의 깊이를 드러내는 데 실패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이란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형성되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리 없으며,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없다고 말한다. 기독교인이 기독교문학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문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독교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제대로 된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즉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기독교 문학은 그리스도인인 작가가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한 글로서 이에 명시적으로 교리적인 면이 부각되는 작품도 있을 수 있지만, 암시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작품 속에 스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문학에 대한 정의는 많은 의문점을 불러 일으킨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작가가 쓴 기독교적 정신을 구현한 작품은 기독교 문학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작가가 쓴 전혀 기독교적인 암시가 없는 작품은 기독교 문학인가?' 등의 질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긍정 혹은 부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각할 것은 첫째,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속적 사랑, 인간 존중 등의 성경에 나타난 정신은 성경이 근원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기독교적 요소를 빼고서도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도 얼마든지 기독교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둘째, 기독교세계관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만을 포괄하는 좁은 세계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은 세계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작동될 수 있는 삶의 원리인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

처럼 이 땅의 단 한 뿔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락을 향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문학은 일종의 종교문학으로 좁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독교문학은 하나의 삶의 원리인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학인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문학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통하여 리얼리티에 근거한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초월적인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기독교문학은 문학의 작가론에 근거한 소산이 아니라 가치론적 소산임을 폭 넓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III.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대하든지 그 사물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지니는 것처럼 문학을 대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문학과 기독교 문학비평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이다. 엘리엇은 “문학비평은 일정한 윤리적 및 신학적 입장에서 하는 비평에 의하여 완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Eliot, 388). 이는 기독교 독자나 비평가는 먼저 작품의 예술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다음에 작품이 구체적인 인간 경험에 의해서 주는 조명을 주목 해야 하고, 끝으로 작품의 철학적 및 윤리적 견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을 할 때, 즉 기독교 문학비평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이 문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말씀이 특별한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 성경 말씀은 이야기와 시와 찬송가로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의 문학적 특질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문학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 성경을 본보기로 할 때 기독교와 문학 그 자체 사이에는 어떠한 대립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에서 문학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으며 문학적 형식을 취해 서술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나 시가, 계시적 언급등 성경에 나타난 본보기는 기독교인에게 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문학작품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일차적으로 시도한 뒤 그 작품을 기독교의 신앙및 성경의 교리와 연관시켜서 묘사해야 한다. 문학이 지니고 있는 심미적 예술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작품에 나타난 구체적인 인간경험에 대하여 조망하고 작품이 지닌 철학적 또는 윤리적 태도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문학은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관심사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작품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미의 차원을 간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되며, 작품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척도나 세계관을 제시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작품 자체를 분석한 뒤 그 작품에 대하여 신앙인으로서의 관점과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지 문학작품을 기독교 교리서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문학에 있어서의 기독교적 관점은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할 수가 있다.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때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주제나 개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독교 문학이나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가 쓴 문학 작품에 한정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데 제 생각으로는 폭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들면 많은 현대 문학은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살고있는 인간들의 불행과 절망과 소외 그리고 쾌락과 안일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문학 작품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지 않은 작가들에 의해 쓰여 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작품에서는 인생은 궁극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사람들은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이러한 문학은 또한 현대 사회에 나타난 딜레마 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동정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 가운데에는 인간의 타락상과 죄악상 그리고 상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있다. 비 기독교적인 작가가 기독교 신앙에 일치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이 서구 문명 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칼빈이 주장하는 일반은총 교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작품이 기독교적인 내용이나 용어를 담지 않고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와 조화되는 관점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다면 기독교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밀튼이 쓴 "Lycidas"는 표면적으로는 고전주의적인 시로서, 고전적 신화에 대한 인용로 가득 차 있으나 이 시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작가의 작품 속에서 심지어 그 작가의 궁극적 목적이 기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얼마간의 포괄적인 기독교적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때 문학이 사상을 나르는 도구인 것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학 작품은 결코 중립적인 산물이 아니다. 이 우주에는 결코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거기에 세계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학비평을 하는 작업에도 기독교세계관이 열쇠가 될 수 있다(Lewis, 50~51).

기독교 문학비평을 할 때 첫 번째 과제는 작가에 대한 이해이다. 비평의 시작은 작가를 아는 것이다. 작가의 이력을 알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작가를 아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예수는 없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인 오강남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자신의 전제 아래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 책은 엄청나게 팔려 나갔다. 그 이유는 작가의 사상이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의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역사적 예수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편집된 준 역사책으로 보느냐의 관점이다. 오강남은 성경을 계시로 보지 않는다. 이런 전제 아래 예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저자는 종교철학 교수이다. 오강남은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한다. 즉 오강남은 철저한 다원주의자라는 것이다. 결국 그의 책은 이러한 다원주의 시각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기독교 문학비평의 작업은 작가의 생각이 기독교세계관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며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하여 일깨워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저자의 의도이다. 문학 비평에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저자

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것은 작품의 중심이자 주제가 될 수 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자 스스로가 밝힌 내용을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작가는 이러한 의도를 작품 서문에서 밝히고 있거나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낸다. 때에 따라서는 작품 후기에 서 언급하기도 한다. 김지하의 이야기 모음집 『밥』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밥'을 상징적으로 의미화시켜 새롭게 해석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짓고 나누어 먹던 우리 고유의 풍습을 재현하여 평등과 사랑, 더불어 함께 사는 의미를 되새긴다. 베이컨은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려고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인정할 생각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이야깃거리나 설교 자료를 구하려고 읽지도 말라. 다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 문학비평은 작가의 생명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생각하고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작가의 인간이해이다. 이것은 작품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을 통해서 저자가 그리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문학비평의 중요한 작업이다.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그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에 나오는 인간이해는 변화되는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존엄성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다. 오직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인간이다. 살기 위해서는 변화하라. 지극히 시장 논리의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이와는 분명히 다르다.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결코 성공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어떠한 작품이든 작가가 그리는 인간을 이해하는 작업은 기독교 문학비평에 있어 기독교와 인문학을 연결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작가의 세상에 대한 관점이다. 인간의 문제는 곧 세상의 문제이다. 대부분 가치있는 문학 작품은 작가의 인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책 읽기에 있어서 저자가 그리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나의 주체적 이해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과 하랄트 뮐러의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은 세상에 대해 서로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작가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하여 진단하고 평가한다. 기독교 문학비평은 바로 이러한 작가의 세상 보기를 이해하는 작업이 되는 동시에 기독교적인 시각에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작가가 기대하는 참다운 가치의 대안에 대한 비평이다.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을 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산물이다. 작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시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황석영이 쓴 『손님』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황석영은 그 아픔의 근원을 기독교와 무속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사용한다. 사랑을 외쳤던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하여 한민족의 분단의 역사에 있었던 기독교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곳판으로 끝낸다. 작가는 한국 근대화는 두 손님인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손님은 천연두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서병이라고도 한다. 즉 서양에서 불어온 병이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천연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작가는 우리 민족의 문제는 손님에 의해서 치유 될 수 없고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석영은 그 주인의 의미를 황해도 ‘진지노귀곳’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 작가의 우리 시대를 향한 대안이다. 기독교 문학비평은 이러한 작가의 대안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비평을 제시해야 한다. 과연 작가의 대안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평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기독교 문학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문학 비평은 문학을 ‘작품’이 아니라 ‘텍스트’로 이해한다. 텍스트가 내포하는 명제는 ‘텍스트는 완전하지 않다’ 또는 ‘텍스트는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텍스트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구조에 기원을 두고 있다. 비평은 새로운 접근법들과 논의방식을 통해 텍스트에 접근함으로써, 의미와 해석, 의미작용, 의미기원, 주제, 해석, 담론, 이데올로기, 권력 등의 문제를 비평의 범주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과 기독교세계관에 바탕한 기독교 문학비평은 역사성을 가진 문학에 대한 하나의 담론으로 문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와 접맥시킬 연결고리를 찾게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문학에서 기독교 문학비평은 기독교 문학을 확산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

#### IV.

하나님의 창조물인 문학은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문학 또한 타락하여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세계관의 안목을 가지고 쓰여진 기독교문학들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독교 문학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내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 문학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무엇이 올바른지 설득할 수 있는데 아주 효용성 있게 역할을 감당해 왔다.

기독교세계관과 문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문학은 기독교세계관으로부터 비평의 논거와 기준을 가져옴으로써 문학이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서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비추어 보게 하고 기독교세계관은 문학을 통하여 그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다. 문학이 신앙의 도구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문학 작품이 시대정신과 현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문학은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이기주의, 폭력적 혁명과 전쟁, 정치와 경제의 세속사와 유물론적 인간을 영적 파동과 사랑으로 혁신하려는 선한 싸움의 문학이다. 기독교문학은 이제 자유사회의 낭비경제, 그 성장 이데올로기 편향의 소비성 문학과 물리적 싸움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모순을 지양, 통합, 초월해야 할 소명의 빛 속에 놓여있다. 기독교문학은 현대문학에서 간과된 기독교 2000년사 속의 지적 전통과 오랜 기독교인문주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능동적으로 계승할 필요성이 있다. 문학비평에 있어 기독교적 관점은 연구대상의 주제 및 질문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분석적 이론



과 방법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주어왔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은 문학의 연구대상인 인간의 정체성을 역사적, 지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구성요소 중 하나의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세속적 대안 보다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당위성과 필연성은 문학 연구에 있어 전통적 담론에 입각한 엘리트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관점에 대한 수정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문학에서 대두되는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 다문화주의는 압제적인 사회적, 문화적 패권을 해체하려는 노력에서 전통적 정전(canon)들을 부당히 중상하고 비판하여 그것들이 제기해온 보편적 의미의 문제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 관점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긍정하므로 문학 전반에서 보여주는 전통적 정전이나 개혁적 모델에 대해 폭 넓은 접근을 취할 수 있다. 기독교의 궁극적 준거 틀은 성별이나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공통의 인간성을 매개로 공유하고 있는 인간 정체성이라는 문학의 보편적 관심사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만 속박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 세상 어떤 이념이나 이론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념이나 이론 자체를 그 근본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찰할 수 있다. 이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주장하는 영적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문화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연장선상에서 학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정열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비판과 세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 참고문헌

- Abraham Kuyper.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Albert M. Wolter. 『창조·타락·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1992.
- C. S. Lewis. “기독교와 문학,” 정현구 역, 『통합연구』 10, 서울: 통합연구학회, 1991.
- Eliot, T. S.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Ltd. , 1951.
- Gallagher, Susan V. and Roger Lundin.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김승수역, 서울: IVP, 1995.
- George M. Marsden.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학문세계』, 조호연 역, 서울: IVP, 2000.
- John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2000.
- Kurt Hohoff.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 한승홍 역, 서울: 두란노, 1992.
- Leland Ryken. 『기독교와 문학』, 권연경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_\_\_\_\_. 『상상의 승리』, 최종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6.
- Nothrop Frye. 『성서와 문학』 김영철 역, 서울: 송실대출판부, 1993.
- Tennyson, G. B. & Xvicson, Edward E. ed. Religion and Modern Liter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 T. S. Eliot. Select Essays, London: Farber and Faber, 1961.
- 강요열. “기독교문학의 전형연구,” 『신앙과 학문』 4권 2호.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1999.
- 권오만 외. 『기독교와 한국문학』, 서울: 역락, 2000.
- 김유규. 『기독교와 문학』, 서울: 종로서적, 1992.
- 문용식. “문학과 신앙의 접목,” 『신앙과 학문』 4권 2호.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1999.
-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연구소. 『통합학문으로서의 기독교인문학』, 2008년도 HK지원사업 신청서 I. 2008, 8.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2005.
- 엄창섭. 『문예사조사의 이론과 실제』, 홍익출판사, 1996, p. 57.
- 원형갑. “기독교문학의 가능성,” 『기독교문학』, 1994, 9.
- 이승우. “한국 현대문학의 진단과 기독교문학의 과제,” 『신앙과 학문』 4권 2호.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1999.
- 조신권. 『영문학 속에 나타난 성서의 향기』, 서울: 품만출판사, 1987.
- \_\_\_\_\_. 『청교도신앙과 문학의 탐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5.
- 최종수. 『영문학사에 빛나는 신앙시인의 이해』,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_\_\_\_\_. 『기독교 문학 고전의 이해』, 서울: 현대지성사, 1997.
- 추태화. 『21세기 기독교인문학의 전망』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www.mix-match.net](http://www.mix-match.net)
- [www.cafe.naver.com/jhlove3](http://www.cafe.naver.com/jhlove3)